



5면

야호 전환학교 첫 입학식

#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2년 5월 10일 화요일 (음 4월 10일) 제3013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마지막 퇴근길, 시민들을 찾아 뵈러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9일 오후 청와대 본관을 걸어 나오며 시민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새정부 출범, 현안 추진 탄력 기대

#### 국정과제에 전북 7대 공약·15개 정책과제 지역현안 반영도, "중앙부처 건의·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 최선"

전북도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에 따라 새민중 정책추진지구 및 금융중심지 지정, 투자유치 등 주요 현안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는 새정부 국정과제 및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을 반영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왔다.

지난해 3월부터 대선공약 발굴 추진단 운영을 통해 대선공약을 발굴하고, 대선 이후에는 새정부 국정과제화 정책추진단을 주축으로 보고회를 여는 등 내실을 다져왔다.

인수위원회 출범 이후에는 당선인과의 인수위 관계자 부처 관계자에게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는 등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왔다.

그 결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월 27일 '지역 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제시하며, 전북의 새민중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먼저, 대형 국제사업을 통한 국토의 새로운 성장거점 형성'을 위해 새민중을 국제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하고 기업활동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학교 및 대형 의료기관 유치 등을 통해 정주 여건도 개선하고, 새민중 메가시티와 특별회계 도입 등을 통해 내부 개발을 가속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이외에도 나머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주력산업 육성·신산업특화단지 조성, 동서 횡단 철도·고속도로 건설,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 태권도사관학교·스포츠종합훈련원 건립, 관광산업 활성화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살자는 국민의 나라 국정비전 아래 국정운영 원칙으로 국민·실용·공정·상식을 제시하고, 국민께 드리는 20개 약속과 110대 국정과제를 선정 발표했다.

특히 대선공약으로 약속한 전북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가 관련 국정과제에 반영됨에 따라, 전북도 핵심사업의 국비 확보 등 신속한 추진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에 따라 도가 새로운 발전을 위해 구상한 ▲새민중 메가시티 조성, ▲미래상용차 산업벨트, 자율주행 시험평가 단지 구축, ▲수소특화 국가산업단지 및 그린수소 전주기 산업생태계 조성,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국제태권도사관학교 및 종합스포츠 종합훈련원 건립, ▲동부권 관광벨트 구축 등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4일 전북을 찾아 전북권역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전북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김병준 위원장은 새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비전과 국정과제를 발표

했고, 정운천 부위원장이 전북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인사발을 통해 지역균형발전 실현을 새 정부의 사명으로 삼겠다는 강한 추진 의지를 밝힌바 있다.

한편 각 부처에서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확정하고, 강력한 재정지출 재구조화와 경제성장 등에 따른 세수증가 등을 통해 충분한 재원을 마련해 국정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이다.

지방시대의 국정과제는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지역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추후 구체화 한다는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기획조정실장은 "국정과제에 반영된 도 현안사업이 탄력을 받아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건의, 국가예산 확보 등 후속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새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이 전북 경제에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정책 동향 파악 등 기민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호상 기자

## '민주당 대통합 완성 새로운 전북시대 준비'

김관영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전북 전·현직 국회의원 등 대거 참여 '매머드급' 선대위 구성 총괄선대위원장에 이광철, 정세균 등은 상임고문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대통합 완성을 위한 '매머드급' 선거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김 후보는 선대위를 '새로운 전북시대 선거대책위원회'로 명명했다.

김 후보는 9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도민이 먹고사는 문제해결, 민생회복을 최우선의 가치로 내걸고 노력하는 도지사가 될 것"이라며 "새로운 전북시대를 착실하게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는 이어 "선대위 구성은 이미 약속한 대로 전북정치의 대통합을 이뤄내는데 초점을 맞췄다"면서 "전북 민주당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대통합에 함께 하자는 요청을 드렸고, 대부분이 대통합과 혁신의 길에 동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상임선대위원장은 김성주 전북도당 위원장과 김수홍 김윤덕 신영대, 안호영, 유성엽, 윤준병, 이원택, 한병도 국회의원(가나다 순)을 비롯해 경선에 참여했던 유성엽 전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공통선대위원장은 강병원, 김민석, 김태년, 노웅래, 박광온, 박완주, 박용진, 박홍근, 변재일, 안규백, 이상호, 우원식, 이개호, 정성호, 진선미, 채이배, 홍영표 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하고, 두재균 전 전북대 총장, 광병선 전 군산대 총장도 합류한다.

총괄선대본부장에는 이광철 전 의원, 상임고문에는 김원기 전 국회의원, 문희상 전 국회의원, 정세균 전 국무총리, 정동영 전 대표, 주승용 전 국회의장과 강현욱 전 도지사, 김원주 전 도지사가 참여했다.

이 밖에 고문단에는 전북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정균환·장영달·최락도·이강래·장세환·채수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는 9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가운데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찬·김광수·박민수 전 의원 등이 참여했다.

선대위 대변안에는 진형식 전북도의회이 나섰었다.

김관영 후보는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도의회 의장을 지내신 분들과 이번 전북도지사 경선에 참여한 후보자들, 송하진 지사 선거 캠프를 비롯한 모든 경선후보 캠프 관계자들까지 선대위에 참여했다"며 "직능과 부문 등을 대표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를 대표하는 분들도 동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관영 선대위는 항상 문을 열어놓고 전북도민 여러분을 모시겠다. SNS를 비롯한 다양한 소통 방식으로 도민 여러분과 만나며 새로운 전북시대를 준비하겠다"라며 "이번 주부터는 민생 경제 현장에서 도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준비한 정책과 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소중한 권리 행사하세요



## SAMSUNG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을 축하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같이 나누고 함께 성장하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꿈꿉니다

새로운 대통령과  
국민이 하나가 되어 만들어갈  
새로운 대한민국을 응원합니다

삼성이 함께 하겠습니다